



잭 더 리퍼 JACK THE RIPPER MUSICAL

다니엘 역 안재욱 인터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작으로 오는 10월 1~2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잭 더 리퍼'는 무엇보다 호화 캐스팅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주인공 다니엘 역을 맡은 안재욱은 안정된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잭 더 리퍼'를 미리 관람했던 성남 아트센터 공연장에는 일본과 중국팬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의 얼굴이 담긴 가방 등을 구매하는 이들도 많았고, 일본어 자막까지 제공되는 등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 광주 공연이 처음이라는 안재욱과 서면 인터뷰했다.

“광주에서 공연은 처음 사랑하는 여인 향한 진한 애절함 느껴보세요”

—광주팬들에게는 뮤지컬 배우보다는 탤런트 이미지가 강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잭 더 리퍼의 무대에 서고 있는데, 뮤지컬에 다시 도전하신 계기가 있나요.

▲광주에서의 공연 자체가 처음이기에 저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에 기대가 큼니다. 오랜만이라는 무대지만 원래 시작은 연극 전공(서울예전 연극학과 90학번)이기에 무대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었습니니다. 큰 계기가 있다기 보다 '잭 더 리퍼'를 처음 접했을 때 작품과 인물에 대한 첫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컸습니니다.

—세상 물질 잘 모르는 젊은 의사로 첫 등장한 후,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변해가는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다니엘의 변해가는 모습을 연기와 노래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외모 등 겉모습 보다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다니엘의 심리변화가 중요하기에 초반에는 좀 더 풋풋하고 밝게 보이며 했습니다. 이후 글로리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부분은 대사나 노래에서 더욱 진한 애절함이 묻어 나오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이 부르는 곡 중 글로리아아와의 이중창, 책과 함께 부르는 '오랜만이야' 등이 인상적이네요.

▲다니엘과 글로리아가 함께 부르는 '어쩌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 잘 표현되어 하는 곡이어서 감성표현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또 책과 함께 부르는 '내가 바로 책' 등은 이중창으로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 곡이죠. 이곡을 부르는 대목은 다니엘이 결국 숨겨진 자아를 밝히는 부분이기도 더욱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성남 공연 때 관람했는데, 일본어 자막으로 공연하고 중국·일본 팬들도 많이 왔던데요.

▲지난해 열렸던 '잭 더 리퍼' 1차공연 때 일본분들이 워낙 많이 오셨었어요. 올해는 외국팬들이 작품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작사측에서 흔쾌히 관객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공감해 일본어 자막을 준비해 줬 덕분에 이번에는 일본 관객들도 좀 더 작품 이해가 쉽진 않았나 싶습니다.

—'취조실' '혼돈' 등 4명이 앙상블로 부르는 곡이 많은데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떤가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공연이기도 하고, 충분한 연습과 인물 관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립되었기에 더욱 멋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역 맡고 탐나는 배우가 있나요.

▲글쎄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공연을 거치며 다음엔 배역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농담을 배우들끼리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런던 타임즈 기자 인터뷰는 어떨까요?

—'잭 더 리퍼' 놓치서는 안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면서 겪게 되는 다니엘의 심리적인 갈등의 변화에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죠. 또 하나, 지루함을 느낄 새가 전혀 없는 다양한 무대변환도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뮤지컬 '막 오브 에이지'에도 같이 출연중이신데, 가수 탤런트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특히 드라마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은 '막 오브 에이지'와 '잭 더 리퍼' 공연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늘 내가 만나게 될 새로운 인물을 꿈꾸기에 특정 작품의 특정 역할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 보지는 않는 편인데 앞으로 뮤지컬은 꾸준히 할 생각이구요. 또 올해를 새로운 음반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내년 초부터는 콘서트 준비도 시작할 것 같네요. 기다리시는 드라마는 내년 늦은 봄쯤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 무대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공연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과 작품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만나요

'정송규 오픈스튜디오-나, 여기에' 전 내달 7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서양화가 정송규씨가 무등산 자락에 무등현대미술관을 낸 것은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곳에서 작품을 창작하며, 자연과 작품이 어우러진 멋진 전시회도 선사하고 있다.



서양화가 정송규씨가 무등현대미술관 2층에 마련된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전을 연다. 사진은 작가의 창작 모습.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10월7일까지 정송규의 작품과 작업실을 함께 공개하는 '정송규 오픈스튜디오-나, 여기에'전을 연다.

이번 전시와 오픈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레고 시리즈와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

그녀는 초기에 정물·인물화를 주로 그렸고, 1997년 이후에는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한 연작을 내놓고 있다. 가족을 위해 물을 길고, 밥을 했던 어머니들의 삶이 곧 예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매일 반복되던 어머니의 삶은 조그만 면의 조합으로 표현했다.

정씨는 전시 기간 중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3~6시 작업실을 공개해 일반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오픈스튜디오도 함께 진행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한 뒤 11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한국여류화가전, 아텍스 도쿄(일본) 등 20여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미술협회광주지부 부회장 역임하고, 2006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작가로 선정됐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전발레 '백조의 호수' 아름다움 속으로

광주시립무용단 정기공연

17~18일 문예회관대극장

가냘픈 빈사의 백조, 흑조 오달의 32바퀴 회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같이 움직이는 백조들의 아름다운 군무...

고전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는 무대 뿐 아니라 '정경' 등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이 매력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제 99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린다. 17일 오후 7시30분, 18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백조의 호수'는 1895년 전설적인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그의 제자 레프 이바노프의 안무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작품은 김유미 단장이 제안한 버전이다. 작품은 성안의 정원 오후, 달빛 어린 호수

가, 성안의 무도회장 등 무대 4막으로 구성돼 있다. 낮에는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는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트 왕자, 그리고 이들을 지배하려는 악마 로트발트의 싸움은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또 화려한 군무와 남녀 주인공의 2인무, 순수한 백색의 공주 오데트와 악역에 찬 마법사의 딸 오달의 대조적인 1인 2역 연기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구윤지·정정은씨가 오데트와 오달 1인 2역을 맡으며, 지그프리트 왕자 역에 오윤환·강병창, 로트발트 역에 조재욱이 캐스팅됐다. 티켓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문의 062-2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타 페스티벌 '현 위의 인생'

18~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에서 처음으로 기타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클래식기타합주단이 주관하는 기타페스티벌 '현 위의 인생'이 18일과 19일 오후 6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김정렬·이미나·고충진·김근영·이중현씨 등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타리스트들과 기타 앙상블팀이 출연, 클래식·영화음악·대중가요·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솔로 독주곡은 쇼팽의 '녹턴 작품 9', 드뷔시의 '골리워의 케이크 위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메인 테마,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보고 싶다', '칠갑산' 등이다. 또 1981년 창단된 광주클래식기타합주단은 흥겨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와 양방언의 '제주의 왕자'를 선사하며 인천기타오케스트라는 로시니의 '세 빌리아의 이발사', '아바 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문의 010-3082-80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movieholic

영화가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그랑프리(12세)
3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4관	퀴즈왕(15세)
5관	캣츠엔독스2(전제)/무적자(15세)
6관	슈퍼베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7관	해결사(15세)
8관	슈퍼베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9관	무적자(15세)
10관	해결사(15세)

아남점

1관	슈퍼베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2관	해결사(15세)
3관	무적자(15세)
4관	캣츠엔독스2(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5관	그랑프리(12세)
6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슈퍼베드(전제)/해결사(15세)
9관	퀴즈왕(15세)/무적자(15세)
10관	퀴즈왕(15세)

MEGABOX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최고급관
2관	퀴즈왕(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4관	해결사(15세)
5관	레지던트이블4(18세)
6관	무적자(15세)
7관	퀴즈왕(15세)
8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제)
9관	그랑프리(12세)
10관	무적자(15세)

CINUS

1관	그랑프리(12세)
2관	해결사(15세)
3관	퀴즈왕(15세)
4관	슈퍼베드(전제)
5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제)
6관	레지던트이블4(18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무적자(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